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家政管理學科

秦京福

2005年 2月

#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惠 淑

秦 京 福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年 月

秦京福의 家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4年 12月

# 목 차

## 국문초록

### I. 서론

1. 문제제기 -----	1
2. 연구목적 -----	4
3. 용어의 정의 -----	5

###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의식 -----	7
1) 결혼관 -----	7
2) 사랑관 -----	8
3) 가족관 -----	9
4) 배우자관 -----	10
5) 성관 -----	11
6) 성역할관 -----	13
2. 결혼준비교육의 개념 및 내용 -----	14
1) 결혼준비교육의 개념 -----	14
2)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 -----	15
3) 결혼준비교육의 내용 -----	17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	20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20
3. 조사도구 -----	21
4. 분석방법 -----	24

####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5
2. 미래의 혼인유형과 이성교제 실태 -----	29
3. 대학생의 결혼의식 -----	30
4.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 요구도 -----	34
5. 결혼준비교육 실시 방법에 따른 요구도 -----	37
6.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변인별 차이-	40
7. 대학생의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에 관한 변인별 차이 -----	43
1) 결혼의식에 관한 변인별 차이 -----	43
2) 결혼준비교육에 관한 변인별 차이 -----	48
8. 대학생들의 특성이 결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	50

#### V. 결론 및 제언 ----- 57



#### 참고문헌 ----- 61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Ferris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23
<표 2> 척도의 신뢰도 -----	24
<표 3>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 -----	26
<표 4> 조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	28
<표 5>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방식과 현황 -----	29
<표 6> 대학생의 결혼의식 -----	33
<표 7>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 요구 실태 -----	35
<표 8>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현황 -----	36
<표 9> 결혼준비교육 실시방법에 관한 요구도 실태 -----	39
<표 10>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에 따른 결혼준비교육 요구도 실태 -----	42
<표 11> 대학생의 결혼의식에 관한 변인별 차이 -----	47
<표 12>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변인 차이 -----	52
<표 13> 대학생들의 특성이 결혼의식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영향력 -----	56

<국문초록>

##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결혼의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진 경 복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여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주지역의 대학생 842명을 대상으로 결혼의식 및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를 5점 Likert 척도(5점 만점)로 조사하였다. 또한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하여 차이검증을 하였고, 결혼의식에 미치는 제변수의 영향력은 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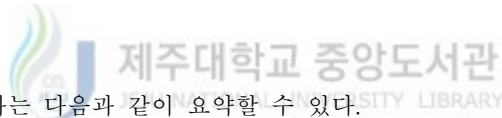
첫째,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을 6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관 3.39점, 사랑관 3.47점, 가족관 3.90점, 배우자관 3.80점, 성관 3.07점, 성역할관 2.7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이유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한 이유로 '결혼은 교육과 연관 시킬 수 없는 요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셋째, 결혼준비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실시기관으로는 대학이고, 교육은 커플이 참석하여 결혼 2-3개월 전, 3-4회의 모임횟수에 소규모 토의실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었다.

넷째, 결혼의식의 배경변인과 관련하여 성별의 경우 가족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간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결혼준비교육의 배경변인과 관련하여 성별과 학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결혼



준비교육 요구도에 관한 남녀간의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과 4학년의 요구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섯째, 결혼의식에 관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가족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결혼준비교육이수여부는 가족관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준비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실시기관으로 대학으로 응답함에 따라 학생들이 쉽게 결혼준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결혼준비교육 강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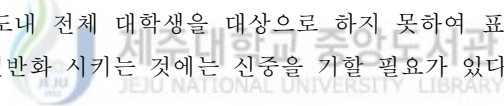
둘째, 결혼준비교육 실시 시 참여단위가 소규모 토의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대규모 강좌와 더불어 소규모 토의형식의 강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소규모 토의형식의 강의를 원하고 있으나 그에 맞는 결혼준비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결혼준비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결혼준비교육강좌 수강 후 실질 결혼 연령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결혼 전 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각 영역별 결혼의식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별을 제외하고 다르므로 그러한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주도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표본추출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산업화라는 자본주의의 물결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오고 물질과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가족 및 가정생활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많은 요인중에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결혼의식의 변화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결혼이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하여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의 혼인은 자유의사에 의한 혼인이라기보다는 부계직계가족을 확립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중매를 통한 배우자 선택만이 인정되고 있었고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도 금기시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과정을 겪게 됨에 따라 배우자 선택 방법도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적절한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에 오늘날의 청년층은 결혼은 선택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즉, 기회가 주어지면 자유롭게 이성과 데이트를 즐기기는 하나 이것이 결혼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결혼과 연애를 별개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독신을 즐기며 사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리서치&리서치가 2000년 전국 5개 도시 거주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

---

1) 한경순(2001), “가족가치관과 가족자원관리의 관계”, 조선대 교과교육연구, Vol.4 No.1



으로 한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결혼은 자신의 선택사항의 성향이 강하지만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결혼은 꼭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56.7%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51.3%로 결혼에 대한 남녀간의 의식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Westermarck(1929)<sup>2)</sup>는 경제적 발달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 교육과 문화보급육구와 취미의 다양화 육구수준의 증대 및 고급화 , 일부일처제의 의무화 등으로 혼인율의 감소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은 결혼상대자와의 이상적인 연애기간으로 6개월~1년 미만이라고 55.3%가 응답하였다. 하지만 20여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혜선(1992)<sup>3)</sup>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선택과정은 단순히 낭만적 사랑만을 키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결혼생활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과정으로 이후 결혼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즉, 남녀가 서로에게 일치감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해 나갈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4)</sup> 이렇듯이 남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할 경우,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신중함의 부족과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은 불안정한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 예로 2003년

---

2) E. A. Watermark(1929), 인류혼인사, 최달신, 정동호(역), 박영사, 1981, 송재희,1988 재인용  
 3) 김혜선(1992),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혜선, 신수아(2002), “결혼준비 척도 개발 연구 -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Vol.40 no.3, p41-53

총 이혼건수는 1,671,000쌍으로 2002년에 비하여 218,000건인 15.0%가 증가<sup>5)</sup>하였고 현재 미국에 이어 이혼율 세계2위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라 가족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혼 5년 미만의 이혼율이 2001년에는 28.2%, 2002년에는 26.9%로 결혼초기 이혼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이들의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 생활양식의 차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무책임, 불성실, 애정 상실 등이 이혼사유로 조사되었다.<sup>7)</sup> 가족생활주기 중 결혼적응기로 볼 수 있는 결혼 후 5년은 부부체계를 형성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시기로서 둘 사이의 가치관, 서로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애정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 시기에 결혼에 대한 개인적 준비가 미비하여<sup>9)</sup>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 전의 상담이나 교육 및 훈련 등은 결혼적응에 도움이 되며, 미혼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려하는 것인데, 실제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들은 결혼준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혼준비교육에

5) 통계청(2003). “혼인·이혼통계결과”

6) 통계청(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0). “통계연보로 본 한국가족의 제문제”

8) Stanley, S. M. & Markman, H. J.(1997), : A Nationwide Random Phone Survey. Denver Colorador ; PREP, Inc, 김혜선, 박희성(2001), “텔레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39 no.7에서 재인용

9) Collins. G. R.(피현희,이혜련 역,1993),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출판사

10)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Vol.34. no.4 p.373-391

관한 홍보의 부족과 더불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모든 강좌가 경험적인 내용보다는 교재를 이용한 이론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결혼준비교육 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sup>11)</sup> 이에 따라 지식전달적인 결혼준비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준비교육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결혼의식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이 필요하다.

## 2. 연구목적

과거의 전통적 가족규범이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이기주의로 변모되면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야기하여 가족해체, 가족의 위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가족해체가 있더라도 새로이 재구성되고, 기존의 전통적 역할 수행상의 변화와 전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족원들간의 애정과 결속을 도모하는 ‘관계적’기능은 여전히 중요시되며 중심적 역할을 해 가고 있다.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결혼초기의 이혼부부들은 결혼생활의 적응과정에서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혼 전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녀가 결혼 후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갈등을 경험하거나 시댁이나 처가의 일원으로 친족관계가 확대되는 등, 모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주도적 계획이나 결혼준비의 부재에서 기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 전 이 같은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두 사람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결혼 후 갈등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혼생활에 대한 예방적 교육의 큰 효과를

---

11) 정의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언을 수 있는 시점은 결혼하기 전, 신혼 일년간, 그리고 중년기 및 노년기를 준비하는 기간.<sup>12)</sup>이라는 점에서 광의 및 협의의 결혼준비교육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대학생들에게 미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학생들의 결혼의식을 고찰해 보고 결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구하여 현실에 맞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 1) 결혼의식

결혼의식은 선행연구(김혜선·한은주, 1998;김경신 외.1998, 1997)를 통해 결혼과 관련한 주요변인으로 평가된 결혼과 관련한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관, 성역할관을 모두 포함하는 결혼 전반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

#### (1) 결혼관

: 결혼에 관한 기초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

#### (2) 사랑관

: 현실성 대 낭만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 (3) 가족관

: 가족에 대한 개방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

#### (4) 배우자관

: 배우자에 대한 평등적 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 (5) 성관

---

12) D. R. Mace(1987), "Three Ways of Helpi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13, pp179-180

: 성에 대한 개방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6) 성역할관

: 성역할에 대한 평등성 대 차별성의 정도를 의미한다.<sup>13)</sup>

2) 결혼준비교육

결혼준비교육은 협의의 결혼준비교육과 광의의 결혼준비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결혼준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진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 즉, 원만한 부부적응과정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는 혼전교육 (premarital education) 또는 혼전준비(premarital preparation), 더 넓게는 혼전상담(premarital counseling)과 가까운 개념이다.<sup>14)</sup>

광의의 결혼준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결혼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교양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위 결혼 및 가정생활교육 (marriage and life education)<sup>15)</sup>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 결혼준비교육은 광의의 결혼준비교육을 의미한다.

---

13) 이숙희(2003),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S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혜석(1989),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

15) Kevin John Howse(1982), "The Empirical Development of A Preparation For Marriage Curriculum For Twelfth-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 D. Andrew University, pp14-24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의식

#### (1) 결혼관

결혼관이란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남녀의 개인적 행복보다는 가계의 영속적 계승을 중시하였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수립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결혼은 그 사회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즉, 가족부양이라는 결혼생활의 의무보다는 결혼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권리가 더 크게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애정적 유대에 근거한 결혼관이 점차 강조되면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현실에서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나 이유를 상실하게 한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달라지면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의미를 부여하여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가고 있다.

성한기(1997)<sup>16)</sup>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66.2%, 여자 37.9%가 ‘결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연근(1998)의 연구에서도 결혼에 대해서는 다수(61.5%)가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혼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16)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Vol. 52 No.1

여학생이 더 개방적이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의식도 점차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owman(1970)<sup>17)</sup>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에 대한 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결혼보다 직업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이거나 직업과 결혼 모두를 성공적으로 연결시킬수 없다고 느끼면 독신으로 남으려 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 (2) 사랑관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랑은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sup>18)</sup>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기술하는 다양한 행위와 그 특성을 분석해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접을 통해 사랑에 대한 태도와 행동들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사랑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타적 사랑(altruistic love)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보살피는 사랑으로 신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료적 사랑(companionate love)은 친한 친구에게서 느끼는 우정 같은 사랑으로 노부부간의 사랑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낭만적 사랑(romantic/passionate love)은 뜨거운 열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강렬한 사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랑은 ‘눈먼 사랑’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실용적 사랑(pragmatic love)은 이성애 근거한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에도 사랑의 관계가 안정적인

17) H. A. Bowman(1970), "marriage for modern", (New York: McGraw-Hill), p.57

18) 두산 동아세계국어사전

고 지속적일 수 있는 서로의 조건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선’이나 ‘중매’를 통해 사대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이러한 사랑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희적 사랑(playful love)은 놀이와 같이 재미와 쾌락을 중요시하면서 즐기는 사랑을 말한다. 이러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나 관계의 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이 줄어들면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플레이 보이들을 들 수 있다.<sup>19)</sup>

과거 우리나라의 결혼과 관련한 사랑유형을 살펴보면 집안 어른들의 가문과 가정환경을 고려한 실용적 사랑이 주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의 사랑유형은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연애를 통한 낭만적 사랑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서구문물의 급격한 유입과 이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 70년대 이후 태어나 경제적 풍요속에 성장한 신세대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유희적 사랑이 팽배해졌다는 문제점도 있다. 삼성(1993)<sup>20)</sup>에서는 신세대의 특징으로 자아실현 추구, 개별성과 다양성 중시, 평등사상과 탈권위주의적 가치관의 내면화, 혁신 모험성향, 간편성 편의성 지향, 소시민적 현실안주사고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과 간편성과 편의성을 지향하는 이들이 만나 유희적 사랑은 더욱 증가하리라 여겨진다.

### (3) 가족관

가족관이란 개인이 가족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주체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신념체계로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

19)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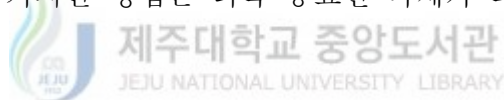
20) 삼성(1993), 신세대 가치관 변화와 인사정책방향, 삼성그룹



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 주는 개념이다.

Strong & Devault(1992)<sup>21)</sup>는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친밀한 관계의 근원을 제공하고 둘째, 경제적 협조의 단위로써 기능하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을 사회화시키고 넷째, 가족구성원에게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다. 즉, 가족은 그들의 구성원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더 큰 사회를 위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을 둘러싼 가정환경 중 일차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신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나 부모 영향력의 약화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원간 상호작용에 관련된 가족 가치관의 파악이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족가치관 정립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4) 배우자관

결혼을 성립시키고 가족형성의 시발점으로서 배우자 선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일생의 동반자로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하는 반면에 가족과 사회에서는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양쪽 가족의 지위, 관계선, 영향력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우자 선택의 범위는 통제는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을 기초로 하는 사회는 애정, 사랑, 정서적 매력 등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범위내에서 이루

21) Strong, B & Devault, C.(1992),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lishing Co.

어진다. 그런데 친족중심사회는 가족의 기능 및 유대를 적절히 보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통제되고 결정되었다. 전통적인 한국가족은 결혼이 개인의 행복과 욕구충족보다는 가문의 영속과 번영을 위해 양쪽 가족의 결합수단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에서 개인은 배제되고 양가족의 대표자인 조부나 부가 혼주로서 배우자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서구적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었으며 결혼에 관련된 규범 및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적 기능이 감소됨으로써 개인의 주관에 바탕을 둔 배우자 선택에 선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Bowman(1970)<sup>22)</sup>은 연애가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연애는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서 이성관계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해 준다. 둘째, 자신의 성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연애가 주는 쾌감, 흥분 등의 낭만성으로 인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넷째,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 방법을 크게 중매결혼과 자유교제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체계 내에서 가족과 친족의 중요성이 클수록 결혼은 가장이나 친족의 연장자 등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부속물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생각이 인식되면서 자유교제를 통한 결혼이 정착되게 된다.<sup>23)</sup>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시 하는 조건을 2가지 지적하도록 한 성한기(1997)<sup>24)</sup>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성격, 능력, 건강의 순이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성격, 외모, 건강, 가정환경 및 순결을, 여학생인 경우 성격, 능력, 경제력, 가정환경 및 건강을 꼽아 중매결혼시 배우자 선택기준인 가

---

22) H. A. Bowman(1970), "marriage for moden", (New York: McGraw-Hill)

23)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24)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Vol.55 No.1

정환경은 배우자 개인의 배경 다음이었다.

#### (5) 성관

성의 개념은 크게 섹스(sex)와 젠더(gender), 그리고 성애 또는 성욕으로 표현되는 섹스얼리티(sexuality)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뜻으로 섹스라는 용어를 통속적으로 쓰기는 하나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용어로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구별된 남자, 여자를 말한다. 또한 심리학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별하는 젠더라는 용어는 사람이 태어난 후 사회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에 의해 학습된 후천적 성을 말한다. 한편 성욕 또는 성애라고 표현되는 성은 사실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정상, 성의존재의미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 전성(全性)적인 것이다.<sup>25)</sup>

Dreikurs(1946)<sup>26)</sup>는 성애는 세 기능이 있는데 첫째, 생식의 기능이고 둘째,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만족을 포함하는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써 사용되고, 셋째, 남성과 여성을 보다 밀접하게 밀착시키는 통합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실제 성생활의 만족도가 결혼생활의 만족으로도 연결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Shorter(1977)<sup>27)</sup>는 인간에게 성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실체로써 인간의 문화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이상으로 만들고 있고, 정서적 유대 없이 짝을 짓는 일은 드물다고 하였다. 또한 Masters와 Johnson(1985)<sup>28)</sup>는

25) 옥선화 정민자(1993), 결혼과 가족, 삼성출판사

26) Dreikurs, Rudolf(1946), "The Challenge of Marriage", New York: Hawthorn Books.,c1946

27) Shorter, Edward(1977),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c1977

28) William H. Master, Virginia E. Johnson(1985), ";Human sexuality, Little, Brown & Company Ltd.

인간의 성(sexuality)이란 생물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행태학적 측면, 임상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차원의 복합 요인의 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이란 모든 인간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성은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여러 개념의 결정체로 인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인간의 성은 인간이 일상에서 상시 겪는 활동의 일환이며 모든 인간이 선천적인 성의 범주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6) 성역할관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성역할이 있다. Kohlberg(1966)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을 신체적·사회적 역할분담에서의 차이점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가정의 경제와 안위를 짊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고 여성은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우선적이었으나 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남녀 평등사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방식과 마찰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에 변화에 따라 여성들은 일을 경제적 요소를 해결 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주부들은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견해가 뚜렷하고 가계부담으로 다가오는 사교육비 등의 제2의 가계경제문제 또한 해결하려는 성향도 띄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

---

29) Kohlberg(1966), L. A. A cognitive development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강정구(1988) 재인용

났듯이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 남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도는 높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역할에서 주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지만 남학생인 경우 여학생보다 성역할 의식에서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가 긍정적인 성향으로 변화하였지만, 아직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정 내의 성역할관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잔존으로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전통적인 역할 개념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결혼준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1) 결혼준비교육의 개념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과 대인관계를 통하여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교육되어 진다. 이러한 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결혼준비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 대상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명명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전교육(Premarital Education)이라 부르는 것은 결혼준비교육면에 역점을 두는 것이고, 혼전상담(Premarital Counseling)이라는 용어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의사결정이나 대화의 장벽과 같은 결혼 전에 혼인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상담활동과 관계가 있다.(Sell, 1988)<sup>30)</sup>

30) 정의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여러 관계와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평가해 보도록 하고, 결혼과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해 준다. 이를 통해 결혼 후의 예상되는 문제나 어려움들에 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노력과 관계하여 전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방적인 접근책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결혼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 연령 또한 늦추어지면서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을 둘러싼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결혼 준비교육이나 결혼상담의 필요성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2)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

부부관계는 서로의 평등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상호 애정으로 결합한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대부분의 남녀들은 결혼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사전준비라고 하면 결혼 일정이 잡힌 후 하는 혼수장만과 거처를 정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평생을 같이 가정을 이루어 나갈 배우자의 성장배경을 비롯한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사전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결혼식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상대방이나 결혼생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여 결혼적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harles Sell(1987)<sup>31)</sup>은 결혼 실패의 세 가지 주요요인으로 첫째, 부적절한 결혼배우자의 선택, 둘째,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셋째, 결혼 전의 부족한 준비 때문이라고 하였고, Gary Collins (1984)<sup>32)</sup>는 성적 매력, 어려운 환경에서의 도피, 막연한 사랑의 감정 등 일시적인 동기 위에 성립된 결혼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 없이 결합된 결혼 관계는 결혼생활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된다고 하였다.

결혼이 좀더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요소는 우선 사회적 기대나 그 사회의 문화, 도덕, 윤리의 규범 안에서 허용되는 결혼이어야 하며, 서로의 배우자가 결혼에 대해 만족을 느껴야 하고 그들의 모든 욕구가 결혼을 통해 적절히 방출, 해결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 발전이나 자아실현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결혼을 성취하려면 다른 사람에 의한 결정보다는 부부자신들이 상대방의 인성, 인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능력, 개성, 자존심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애정을 가지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결혼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미정(2000)<sup>33)</sup>의 선행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 개인 내적 요인 중에서는 성격,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인간 요인 중에서는 의사소통 양식, 문제해결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역할분담, 성, 생활습관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선영(2002)<sup>34)</sup>의 연구에서는 결혼준비와 결혼만족은 비교적 높은 상

31) Charles M. Sell, "Family Ministry" op. cit

32) G. R. Collins(1984), A Christian Counseling, p.231

33) 김미정(2000),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임선영(2002), “결혼준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혼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관관계를 나타냄으로서 결혼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 후 결혼만족 정도도 높았고 그 하위영역 중 특히 관계준비 측면과 결혼생활준비 측면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예방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예비부부들에게 광의 및 협의의 결혼예비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혼준비교육은 몇 가지 면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첫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결혼생활 2-5년 사이의 이혼이 이혼율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을 통한 결혼이라는 사실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이혼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적인 차원에서 결혼예비 교육이 필요하다.

Rutledge(1966)<sup>35)</sup>에 따르면 결혼을 부부의 적응과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 적응과정은 결혼식 이전부터 다시 말해서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행복한 결혼은 헌신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적응과 만족을 높이며 관계를 성숙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결혼제도 자체의 성격이 위계적인 구조에서 평등적인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와 기대감을 의논하고 책임의 영역을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3) 결혼준비교육의 내용

결혼준비교육은 Ernest Groves(1924)가 보스턴 대학에서 정규강좌를

---

35) Rutledge(1966), Premarital Counseling,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Co.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으며 2차대전 전의 결혼준비교육은 주로 상담전문가들과 목사들에 의해 행해졌다. 상담전문가들이 행하는 결혼전문교육은 혼전상담형식으로 병리학적 접근으로 진행되어 예비부부 개인들의 역기능을 고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다 1970년대에 들어 Oates와 Rowart(1975)에 의해 결혼준비교육은 ‘예방 및 교육’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즉, 1970년대에 결혼생활의 성숙화 운동(Marriage Enrichment Movement)이 부부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중시하는 교육적이고 예방적인 운동으로 발전되면서 이 운동의 철학이 결혼준비교육으로 이어져 비로소 결혼준비교육은 ‘치료 및 회복’이라는 측면보다는 교육에 의한 ‘예방 및 교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으로 전환되게 되었다.<sup>36)</sup> 대표적인 예로 Mace(1979)를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결혼 전 준비는 치료적인 개념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예방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예비부부들의 장점을 확인하여 보다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준비교육이란 예비부부의 관계발전을 돕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후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직접 의사소통 기술, 갈등해결기술, 문제해결기술 등을 익히게 하는 교육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결혼준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기술습득이 가장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갈등해결방법, 역할기대, 가족관계, 성생활, 경제적인 문제, 성장영역의 확인, 평등한 결혼, 수용과 친밀감, 책임수용, 신뢰감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적인 면에서는 미국과 같이 의사소통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고 성생활, 결혼에 대한 책임, 갈등해결, 가족관계, 가정경제, 부부역할, 자녀교육, 결혼에 대한 이해 등의 순으로 다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결혼준비교육이 교회를 중심으로 소

36) 정의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의 미혼남녀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내용에도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육내용에 그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에 따라 결혼을 앞둔 대다수의 미혼남녀 누구든지 결혼준비교육을 받도록 정부에서 평생 교육차원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예비 결혼대상자인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결혼의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 실시방법 요구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배경변수에 따라 결혼의식 및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결혼의식에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문·사회계 400부, 이공계 400부, 예체능계 200부 총 1000부 배부하였으며 이 중에서 912부가 회수되었다. 부실 기재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84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는 2004년 8월 10일 ~ 8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구성과 신뢰도를 검토한 후 2004년 9월 1일~ 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조사도구

#### (1) 결혼의식

결혼의식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선행연구(김혜선·한은주, 1998; 김경신 외, 1998, 1997)를 통해서 결혼준비교육의 주요변인으로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관, 성역할관으로 평가됨으로써 이들을 결혼의식의 주요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결혼의식과 가족관의 척도는 김혜선·한은주(1998)<sup>37)</sup>가 개발한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척도에서 결혼관과 관련한 8문항, 가족관과 관련한 6문항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사랑관 척도는 김정옥(1995)<sup>38)</sup>이 사용한 애정관 검사 척도에서 6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성관과 배우자관 척도인 경우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sup>39)</sup>가 제작한 배우자 선택조건 척도에서 배우자관과 관련한 문항 6문항, 성관과 관련하여 6문항을 추출하였고, 성역할관 척도는 이석재(1999)가 번역한 6문항을 사용하여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인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의 범위는

37) 김혜선·한은주(1998),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II)”,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 Vol.26, p397~416

38) 김정옥(1998), “결혼과 가족”, 학지사

39)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조건”, 대한가정학회지 Vol.35 no.3, p15-30

결혼관인 경우 8점에서 40점 사이고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관, 성 역할관인 경우 6점에서 30점사이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필요한 것이고, 낮은 점수일수록 선택적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 (2) 결혼준비교육

이 연구의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관한 척도는 Ferris(1980)의 척도를 참고로 정의숙(2001)<sup>40</sup>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내적영역 4문항(1번, 2번, 3번, 9번 문항), 상호관계영역 7문항(5번, 6번, 12번, 14번, 15번, 16번, 22번 문항), 개인외적영역 3문항(10번, 11, 17번 문항), 철학적 영역 3문항(4번, 13번, 24번 문항), 기타영역 3문항(18번, 19번, 20번 문항), 기술에 관한 영역 4문항(7번, 8번, 21번, 23번 문항)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인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사이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필요한 것이고, 낮은 점수일수록 선택적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

40) 정의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1> Ferris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주제요인	교육내용	주제요인	교육내용
개인내적 영역	정서적 문제 가족 배경 가치 관계기술 결혼의 동기 개인적 습관	상호관계영역	성 생활 가계관리 의사소통 역할 배우자의 요구인지 자녀 양육 위기/ 갈등 동반자의식 생활 스타일 레크레이션 시간에 따른 변화 성차 의사결정 우선순위 재혼
외적 영역	인척관계 고용/직업 친구 교육 주거시설 사회생활 가계경제운영 종교활동		
철학적 영역	종교 사랑의 정의 이성적인 결혼 이혼/재혼 기본적 단위로서 가족	기술 영역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기술 풍요기술(enrichment) 재정적 관리기술 수용하는 기술 의사결정 기술 남편/아내로서의 기술 인지기술 자녀양육기술 변화수행기술
기타 영역	신체적 건강 결혼 연령 / 성숙 카운슬링 사회적 유사성 결혼 예식 물질 남용 결혼에 대한 준비 결혼에 대한 법률상식 죽음 도박		

출처 : R.H.Ferris(1985). *Premarital preparation : an education content design for seventh day adventists in the United states*

<표 2> 척도의 신뢰도

척 도		신뢰도 계수
결혼 의식	결혼관	.70
	사랑관	.67
	가족관	.61
	배우자관	.69
	성관	.60
	성역할관	.84
	계	.84
결혼 준비 교육	개인내적영역	.77
	상화작용영역	.86
	개인외적영역	.72
	철학적영역	.59
	기술영역	.83
	기타영역	.75
	계	.94

####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유의도 검증은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혼의식에 대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의 집단간 차이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혼관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와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본 조사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에 의해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관련특성과 가족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 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을 보면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842명 중 남성 48.9%, 여성 51.1%로 여성이 조금 많았다. 학년은 1학년 10.6%, 2학년 44.4%, 3학년 28.3%, 4학년 16.7%로 2-3학년의 학생 분포가 많았다. 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 37.3%, 이공계 43.9%, 예체능계 18.8%이었다.

연령은 20세 이하가 13.8%, 21세-24세가 67.9%, 25세 이상이 18.3%으로 21-24세인 대상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평균 연령대가 20-24세에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교분포는 없는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교(31.8%), 가톨릭(15.4%), 개신교(13.5%)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출생순위는 첫째 43.2%, 둘째 33.7%, 셋째 14.4%, 넷째 5.6%, 다섯째이상 2.5%로 첫째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1인자녀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여겨된다.



<표 3>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412(48.9)	본인연령	20세이하	116(13.8)
	여	430(51.1)		21세-24세	572(67.9)
학년	1학년	89(10.6)		25세이상	154(18.3)
	2학년	374(44.4)	출생순위	첫째	364(43.2)
	3학년	238(28.3)		둘째	284(33.7)
	4학년	141(16.7)		셋째	121(14.4)
		넷째		47(5.6)	
전공	인문사회계	314(37.3)	종교	다섯째이상	57(2.5)
	이공계	370(43.9)		가톨릭	130(15.4)
	예체능계	158(18.8)		개신교	114(13.5)
계		842(100.0)		불교	268(31.8)
				무교	320(38.0)
			기타	10(1.2)	
			계		842(100.0)

주) 출생순위는 결측값으로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 2) 가족 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부의 연령은 51-60세 50.7%, 41-50세 35.9%, 60세 이상 5.6%의 순이었으며 모의 연령은 41-50세 58.4%, 51-60세 35.3%, 60세 이상 4.3%의 순이었다.

부의 학력은 고졸 43.1%, 대졸 20.2%, 중졸 12.1%, 초졸 6.7%, 대학원졸 5.8%, 전문대졸 3.7%의 순이고 모의 학력은 고졸 48.2%, 중졸 21.5%, 초졸 13.4%, 대졸 9.5%, 전문대졸 2.4%, 무학 1.5%, 대학원졸 1.4%의 순이었다. 부와 모는 공통적으로 고졸 학력이 가장 높은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의 경우 고졸 다음으로 대졸이 많아 학력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모의 경우 고졸 다음으로 중졸 초졸의 순으로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

부의 직업은 자영업 26.6%, 농어업 18.3%, 사무·공무원 17.2%, 서비

스직 8.3%, 전문직 6.9%, 기술직 11.3%, 기타 4.8%, 무직 3.6%, 생산직 1.3%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 36.2%, 자영업 20.1%, 농어업 16.2%, 서비스직 11.3%, 사무·공무원 4.6%, 전문직 4.2%, 기타 2.7%, 생산직 1.5%, 기술직 1.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생산직의 분포가 적은 것은 제주도의 산업구조에 따른 결과이고 부가 무직인 경우는 정년퇴임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연금 수급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생존여부에는 양친생존 91.6%, 모친생존 7.0%, 부친생존 7.0%, 양친사망 0.3%의 순이었으며 월수입의 경우 201-300만원 29.5%, 100-200만원 29.3%, 301-400만원 13.5%, 100만원 미만 8.7%, 500만원 이상 5.8%, 401-500만원 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부연령	40세이하	2(0.2)	모연령	40세이하	6(0.7)
	41-50세	302(35.9)		41-50세	492(58.4)
	51-60세	427(50.7)		51-60세	297(35.3)
	60세이상	47(5.6)		60세이상	36(4.3)
부학력	무학	5(0.6)	모학력	무학	13(1.5)
	초졸	56(6.7)		초졸	113(13.4)
	중졸	102(12.1)		중졸	181(21.5)
	고졸	363(43.1)		고졸	406(48.2)
	전문대졸	31(3.7)		전문대졸	20(2.4)
	대학졸	170(20.2)		대학졸	80(9.5)
	대학원졸	49(5.8)		대학원졸	12(1.4)
부직업	사무,공무원	145(17.2)	모직업	사무,공무원	39(4.6)
	전문직	58(6.9)		전문직	35(4.2)
	자영업	224(26.6)		자영업	169(20.1)
	생산직	11(1.3)		생산직	13(1.5)
	기술직	45(5.3)		기술직	8(1.0)
	서비스직	70(8.3)		서비스직	95(11.3)
	무직	30(3.6)		전업주부	305(36.2)
	농어업	154(18.3)		농어업	136(16.2)
기타	40(4.8)	기타	23(2.7)		
부모 생존여부	양친생존	771(91.6)	월수입	100만원미만	73(8.7)
	부친생존	7(0.8)		100-200만원	247(29.3)
	모친생존	59(7.0)		201-300만원	248(29.5)
	양친사망	3(0.4)		301-400만원	114(13.5)
	기타	2(0.2)		401-500만원	47(5.6)
				500만원이상	49(5.8)
계		842(100.0)	계		842(100.0)

주) 무응답으로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 2. 미래의 혼인 유형과 이성교제 실태

대학생들의 미래의 혼인 유형과 현재 이성교제의 유무와 교제기간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결혼하겠다’가 81.2%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를 한다’와 ‘동거 후 결혼을 한다’가 10.6%으로 ‘독신’ 7.8%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하고 난후 서로 간의 몰랐던 부분을 알고 실망하거나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문제를 줄이기 위해 미리 상대방에 대해 파악한 후 결혼을 정하겠다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이성교제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7.4%이었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62.6%이었다. 교제중인 학생들의 교제기간은 ‘6개월 이하’가 104명(33%)이었고, ‘1년 이상-2년 미만’ 87명(27.6%), ‘7개월-1년 미만’이 57명(18.1%), ‘3년 이상’ 45명(14.3%), ‘2년 이상-3년 미만’ 22명(7.0%) 순이었다.

<표 5>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방식과 현황

변인	구분	빈도수	백분율(%)
미래 본인의 혼인 유형	결혼	684	81.2
	동거	33	3.9
	동거 후 결혼	56	6.7
	독신	66	7.8
현재 이성교제여부	예	315	37.4
	아니오	527	62.6
계		842	100.0
현재 교제기간	6개월 이하	104	33.0
	7개월-1년미만	57	18.1
	1년이상-2년미만	87	27.6
	2년이상-3년미만	22	7.0
	3년이상	45	14.3
계		315	100.0

### 3. 대학생의 결혼의식

결혼의식에 관한 척도의 세부영역은 결혼관, 사랑관, 가족관, 배우자관, 성관, 성역할관의 6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생의 결혼의식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결혼관에 관한 영역에서는 전체평균 점수가 3.39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문항에서 3.58점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사랑은 결혼의 필수조건이다’라는 문항에 평균 3.71점으로 사랑보다는 조건에 맞춘 중매에 의해 결혼을 하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교제기간은 짧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평균 3.37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진다’라는 문항이 평균 3.68점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랑관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평균 3.47점으로 나타났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결혼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평균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사랑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문제를 그 사람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 평균 3.88점을 나타냄으로서 사랑은 결혼의 필수조건이면서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갑자기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진실한 사랑일 수 있으며(평균 3.47점),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학력차이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평균 3.56점)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관에 관한 영역은 전체 평균 3.9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이 전체 평균 4.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부양과 관련하여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평균 4.24점으로 자녀양육은 부모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 시 ‘친구같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 하겠다’라는 문항에서도 전체 평균 4.23점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권위적인 부모이거나 자식은 엄하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교육방법과는 달리 부모님은 자녀의 보호자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같은 존재로 부모상을 세우려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우자관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의식과 관련한 척도 중 배우자관 척도는 전체평균 3.80점으로 ‘배우자간에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이 4.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배우자간에는 인생목표와 가치관이 확실해야 한다’가 4.13점, ‘배우자간에는 역할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가 4.09점, ‘배우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가 3.96점 순이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나와 종교가 같아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평균 2.80점으로 낮게 나왔으나 표준편차가 심해 종교를 의식하는 경우는 자신과 같기를 바라는 반면, 무교인 학생의 경우 배우자의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로 여겨진다.

성관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평균 3.07점으로 ‘성적매력은 이성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응답이 3.11점을 나타내었고 ‘성행동은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의 문항이 평균 3.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순결해야 한다(3.13점)’고 인식하면서도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3.0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한기(41)의 선행연구와 같이 이성친구와 배우자는 별개라는 생각과 자신은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혼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중 잣대로 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41)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5권

성역할관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평균 2.75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학 전 어린 자녀는 아내가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3.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집안 살림은 아내의 책임이다’라는 문항이 평균 2.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부양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문항에 평균 2.81점,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사회의 성역할관에서 벗어나 역할교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재는 미비한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표 6> 대학생의 결혼의식

변수	문 항	M	SD
결혼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3.58	1.19
	결혼은 생활상의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3.38	1.00
	친구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진다.	3.68	1.03
	결혼식은 일생의 단 한번이므로 가능한 한 성대하게 하고 싶다	3.37	1.08
	출생순위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4	1.13
	부모의 생존여부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3.11	1.10
	사랑한다면 교재기간이 짧아도 결혼할 수 있다.	3.37	1.09
	사랑은 결혼의 필수조건이다.	3.71	1.16
	소 계	3.39	1.10
사랑관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학력차이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3.56	1.06
	가족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다.	3.34	1.14
	어떤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문제를 그 사람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88	.86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결혼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4.02	.96
	사랑할 때에는 파트너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55	1.10
	갑자기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랑일 수 있다.	3.47	.92
	소 계	3.47	1.01
가족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좋은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하다.	4.26	.75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4.23	.87
	주거지를 정할 때 남편의 직장이 우선 고려된다.	3.38	.94
	아이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24	.84
	결혼 후 부모님을 부양할 것이다.	3.66	.89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부치료(또는 성치료, 이혼치료)를 받거나 권하겠다.	3.65	.88
	소 계	3.90	0.86
배우자관	배우자는 인생목표와 가치관이 확실해야 한다.	4.13	.85
	배우자는 나와 종교가 같아야 한다.	2.80	1.24
	배우자간에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61	.90
	배우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96	.91
	배우자간에는 역할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09	.83
	배우자간에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21	.85
	소 계	3.80	0.93
성관	사랑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동거를 해서는 안 된다.	2.97	1.13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하다.	3.08	1.15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순결해야 한다.	3.13	1.08
	성행동은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49	.88
	성적 매력은 이성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이 된다.	3.11	.93
	'성'의 의미는 성별의 구별보다 성행위를 의미한다.	2.63	.99
	소 계	3.07	1.03
성역할관	취학 전 어린 자녀는 아내가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	3.15	1.07
	가족부양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있다.	2.81	1.03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집안 살림은 아내의 책임이다.	2.31	1.06
	아내는 남편이 결정한 가정내의 중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56	1.08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2.87	1.09
	남편의 수입이 중요하므로 아내보다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더 중요하다.	2.77	1.08
	소 계	2.75	1.07
	계	842	100.0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3점, 5점: 매우그렇다



#### 4.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 요구도

##### 1)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 요구도 실태

조사대상자의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전체조사대상자들의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가 18.8%이고 ‘약간 필요하다’가 55.9%로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 이유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가 5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가족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가 18.4%, ‘바람직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라는 문항에 6.7%,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은 교육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요소’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결혼은 두 사람간의 적응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29.2%, ‘교육 없이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11.1%,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이므로’ 9.7%,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에 조언자가 많기 때문에’의 경우 8.3%의 순이었다.

<표 7>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 요구 실태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결혼준비교육 요구도	매우필요하다	158	18.8
	약간필요하다	471	55.9
	그저 그렇다	141	16.7
	별로 필요하지 않다	56	6.7
	거의 필요하지 않다	15	1.8
	계	841	100.0
필요이유	행복한 결혼생활위해	496	58.9
	결혼 후 이혼하지 않기 위해	17	2.0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을 위해	56	6.7
	가족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155	18.4
	문제의 조속한 해결방법을 익히기 위해	36	4.3
	기타	10	1.2
	계	770	100.0
불필요 이유	결혼은 두 사람간의 적응의 문제	21	29.2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이므로	7	9.7
	교육 없이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8	11.1
	부모님을 비롯 주위에 조언자가 많기에	6	8.3
	결혼은 교육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요소	30	41.7
	계	72	100.0

## 2)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현황

<표 7>에서 대학생들이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 중 결혼준비교육 불필요성의 이유로 ‘결혼은 교육과 연관 지을 수 없다’라는 이유가 41.7%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생활교육론 및 실습’, ‘사랑과 결혼’, ‘결혼과 가족’ 등의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수업을 1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과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의 요구도를 비교하고자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교과목 이수현황을 조사하였다.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의 이수 현황은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24.8%에 해당하고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는 633명(75.2%)이었다.

<표 8> 조사대상자의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현황

이수여부	빈도	백분율(%)
이수자	209	24.8
비이수자	633	75.2
합 계	842	842(100)

## 5. 결혼준비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요구도

대학생들의 결혼준비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요구도를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결혼준비교육을 받는다면 실시기관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관으로 여기는 기관은 32.5%가 응답한 대학이었다. 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교육기관이라는 본질성과 함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그 인지도가 높다고 여겨진다. 그 다음으로는 27.0%이 응답한 YWCA 등의 사회봉사단체였고, 정부가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응답자도 13.3%로 공공기관이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성당이나 교회 등의 종교기관인 경우 10.3%, 사설학원 등의 민간단체는 7.2%, 마을회관 4.6%이었다. 기타의 응답중에는 부모님이 결혼준비교육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결혼준비교육의 시작시기는 언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결혼준비교육의 시작시기를 ‘2-3개월 이내에 하길 원한다’가 3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4-6개월 이내에 원한다’가 36.2%로 2-6개월 이내에 시작하길 원하는 학생이 73%나 되었다. 그 외에 10개월 이상 전이 10.9%, 1개월 이내가 7.5%, 7-9개월 이내가 5.9%순 이었다.

‘결혼준비교육 실시 시 모임횟수는 몇 회 이상 하는 것이 좋겠는가’의 문항에서는 3-4회가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6회가 28.0%, 1-2회가 23.8%, 7회 이상이 13.2%순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2회로는 결혼준비에 관한 지식 전달의 이론적인 부분에만 강조되어 배우자와 실질적인 심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7회 이상의 경우는 장기간으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혼준비교육의 실시장소는 어떤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소규모 토의실이 57.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인 부분만이 아닌 개인적인 상담의 장으로도 발전하기 바라는 생각에 의한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관한 부분임으로 강의실에서 실시하기를 바라는 응답이 17.0%이었고, 참가자의 편안한 심리상태를 위해 ‘참가자의 가정’에서 실시하길 원하는 응답자가 16.9%이었다.

결혼준비교육의 참여단위로는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가능하면 커플이 같이 참여하여 미래에 대한 설계를 원하는 응답자가 5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커플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가 36.2%이었다. 이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함께 참여하여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길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기타 의견으로 처음에는 커플이 함께 교육을 받다가 남녀로 구분하여 수강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결혼준비교육의 대학설강 형식에는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특별강좌’가 43.2%, ‘그룹미팅’ 31.4%, ‘정규수업’ 14.7%, ‘부설기관’ 9.0%, 기타 1.5%의 순이었다. 결국 대학생들은 장기간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특별강좌나 그룹미팅과 같이 심도 있게 상대와 결혼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집중형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부설기관을 통하기 보다는 정규수업의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 9> 결혼준비교육 실시방법에 관한 요구도 실태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실시기관	종교기관	87(10.3)	실시장소	강의실	143(17.0)
	정부	112(13.3)		소규모토의실	486(57.7)
	민간단체	61(7.2)		참가자가정	142(16.9)
	YWCA	227(27.0)		교육실시자가정	49(5.8)
	마을회관	39(4.6)		기타	20(2.4)
	대학	274(32.5)			
	기타	42(5.0)			
시작시기	1개월이내	63(7.5)	모임횟수	1-2회	200(23.8)
	2-3개월전	310(36.8)		3-4회	274(32.5)
	4-6개월전	305(36.2)		5-6회	236(28.0)
	7-9개월전	50(5.9)		7회이상	111(13.2)
	10개월이상전	92(10.9)		기타	21(2.5)
	기타	22(2.6)			
참여단위	반드시 커플 함께	305(36.2)	강의형식	부설기관	76(9.0)
	가능하면 커플	429(51.0)		정규수업	124(14.7)
	남녀구분	33(3.9)		특별강좌	364(43.2)
	아무래도 좋다	64(7.6)		그룹미팅	264(31.4)
	기타	11(1.3)		기타	13(1.5)
정규수업 수강여부	수강	517(61.4)	프로그램 수강여부	수강	568(67.5)
	비수강	325(38.5)		비수강	274(32.5)
계		842(100.0)	계		842(100.0)

주) 무응답으로 빈도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6.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변인별 차이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준비교육 이수여부와 세부내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0>에 의하면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5점 만점에 전체 3.92점으로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4.08점, 비이수자 3.87점으로 이수자와 비이수자 모두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술영역이 전체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상호영역으로 전체 4.01점, 개인외적영역 3.87점, 개인내적 3.83점, 기타영역 3.77점, 철학적 영역 3.71점의 순이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김혜석(1990), 양은숙(1993)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민순(1995), 김난희(2000)의 연구에서는 신앙과 신앙적 활동의 조화 여부에 대한 요구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 자체가 종교인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5점 만점에 4.08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영역이 4.25로 가장 높았고 상호작용영역이 4.18점, 개인외적영역 4.02점, 개인내적영역 3.99점, 기타영역 3.89점, 철학적영역 3.85점 순이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결혼의 실제적인 현실을 알기(4.22점), 의사소통 향상기술(4.34점), 맞벌이와 가사분담에 대한 의논(4.14점), 배우자와의 성격조화(4.29점), 자녀양육방법(4.25점) 등은 요구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 철학적 영역의 배우자와의 종교조화 여부는 3.42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는 개인의 선택영역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고려의 대상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종교는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비이수자의 경우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3.87점으로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4.08점에 비해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술영역이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철학적 영역이 3.6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의사소통향상이 4.09점, 배우자와 동반자의식 쌓기 4.08점, 배우자와 평등한 의사소통 4.00점, 공동적인 책임의식 갖기 4.10점, 문제해결기술 4.07점, 자녀양육 4.00점, 문제위기 다루는 능력익히기 4.02점, 스트레스 해결 능력기르기 4.01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4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와 비이수자와의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개인내적영역의 ‘결혼동기와 이류를 검토하는 것’과 상호작용영역에서의 ‘성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배우자의 성적 기대를 이해하는 것’, 철학적 영역에서의 ‘자신과 배우자의 종교와 종교적 활동정도가 조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 기타영역의 ‘생활할 집의 위치, 크기, 비용, 꾸미기 등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결혼에 대한 고찰의 기회와 현실에서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직시할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결혼준비를 할 수 있다고 인지된 교육의 결과로 사료된다.



<표 10>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결혼준비교육 요구도

영역	내 용	전 체	이 수	비이수	t-test
개인 내적 영역	결혼하려는 동기와 이유를 검토해 보는 것	3.77(.86)	3.85(.83)	3.75(.87)	1.43
	결혼생활의 실제적인 현실을 알게 하는 것	4.01(.84)	4.22(.76)	3.95(.85)	4.13***
	자기 자신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3.85(.80)	4.00(.80)	3.80(.80)	3.13**
	가정배경과 성장배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3.72(.92)	3.92(.87)	3.66(.93)	3.71***
	소 계	3.83(.66)	3.99(.62)	3.78(.66)	3.97***
상호작용 영역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술과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기술을 익히는 것(의사소통 향상기술)	4.15(.79)	4.34(.79)	4.09(.78)	3.92***
	배우자간의 동반자의식이나 친밀감을 키워나가는 것	4.13(.81)	4.30(.79)	4.08(.80)	3.53***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해 가는 것	3.93(.86)	4.12(.76)	3.87(.89)	3.79***
	배우자와 평등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4.06(.83)	4.24(.78)	4.00(.84)	3.73***
	성교육(남녀의 생리, 임신, 피임, 출산 등)을 실시하는 것	3.88(.89)	4.10(.82)	3.80(.90)	4.41***
	성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배우자의 성적 기대를 이해하는 것	3.80(.86)	3.81(.82)	3.79(.86)	.22
	공동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	4.16(.82)	4.34(.74)	4.10(.83)	3.76***
소 계	4.01(.62)	4.18(.58)	3.96(.62)	4.46***	
개인의적 영역	합리적으로 가정배경을 관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	3.84(.84)	3.99(.84)	3.79(.83)	2.95**
	양가 부모님들과 맺을 유대관계(공거, 재정적 지원, 충고 등)정도를 의논하는 것	3.79(.85)	3.95(.83)	3.73(.86)	3.251***
	맞벌이와 가사분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것	4.00(.85)	4.14(.85)	3.95(.84)	2.94**
	소 계	3.87(.67)	4.02(.65)	3.82(.67)	3.78***
철학적 영역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이 조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	4.06(.81)	4.29(.74)	3.98(.83)	4.77***
	자신과 배우자의 종교와 종교적 활동정도가 조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	3.37(1.07)	3.42(1.06)	3.35(1.08)	.73
	재정관리에 관한 방법을 익히는 것	3.97(.87)	4.14(.81)	3.91(.88)	3.351***
	소 계	3.71(.75)	3.85(.71)	3.66(.75)	3.07**
기술 영역	문제해결기술과 갈등해결기술을 익히는 것	4.13(.82)	4.33(.77)	4.07(.83)	4.05***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과 방법을 익히는 것	4.06(.86)	4.25(.81)	4.00(.87)	3.71***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와 위기를 다루는 능력을 익히는 것	4.10(.85)	4.33(.79)	4.02(.85)	4.63***
	스트레스와 갈등해결 능력을 익히는 것	4.06(.85)	4.23(.84)	4.01(.85)	3.31***
	소 계	4.06(.68)	4.25(.65)	3.99(.67)	4.78***
기타 영역	자신과 배우자의 현재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	4.01(.86)	4.13(.85)	3.98(.86)	2.24*
	생활할 집의 위치, 크기, 비용, 구미기 등을 결정하는 것	3.60(.95)	3.69(.96)	3.57(.95)	1.69
	분수에 맞는 혼수, 약혼 및 결혼예식, 피로연,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것	3.71(.93)	3.86(.89)	3.66(.95)	2.68**
	소 계	3.77(.74)	3.89(.73)	3.73(.75)	2.65**
합 계	3.92(.57)	4.08(.54)	3.87(.57)	4.55***	

주) 계수는 M(SD)임

## 7. 대학생의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에 관한 변인별 차이

대학생들이 지각한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의 요구도를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자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다.

### 1) 결혼의식에 관한 변인별 차이

결혼의식이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결혼관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 모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내고 있었다.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가, 연령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경우,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비해 이수하지 학생의 경우가 결혼관에 대한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의식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Duncan's-Test의 결과 초졸이하의 경우와 중졸, 고졸 이상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가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력이 생긴 여성들이 결혼은 필수 개념에서 벗어나 선택적의 요소로 변화한 결과로 여겨지고 이는 결혼준비교육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에 따라 결혼은 의무의 개념에서 선택의 개념으로 의식이 변한 이숙희<sup>42)</sup>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사랑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관련변인에서는 성별, 계열별, 연령에 따라,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의 직업, 부의 학력, 모의

42) 이숙희(2003),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S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전공에서는 예체능계의 경우가 사랑관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24세 이하과 25세 이상간에 차이를 나타내면서 25세 이상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결혼관과 마찬가지로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한 학생에 비해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가 사랑관에 대한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관을 살펴보면 개인과 관련한 변인에서는 학년과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년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1-2학년과 3학년, 4학년 간에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족관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가 비이수자에 비해 가족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적령기에 도달하게 되고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생김에 따라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계기를 갖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배우자관의 하위영역에서는 성별, 학년, 계열별, 연령별,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개인관련변인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의 연령과 부와 모의 학력, 부모의 생존여주와 가계수입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경우가 배우자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에서는 예체능계열에서 학년은 Duncan's-Test의 결과 각 학년에서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자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관련 교과목 이수자가 비이수자에 비해 높은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에서는 21-24세의 경

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배우자관에서 높은 의식을 나타내는 것을 기반으로 21-24세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성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교육이수여부와 가족관련변인의 부의 연령과 모의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24세이하의 집단과 25세 이상의 집단으로 나뉘면서 25세 이상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Duncan's-Test의 결과에서는 3학년, 1-2학년, 4학년의 집단으로 나뉘고 있었다.

성역할관의 하위영역의 경우 성별, 학년, 계열별, 연령,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가족관련변인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가 가부장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년에 있어서는 Duncan's-Test의 결과 1학년과 2-4학년의 두 집단 중 1학년의 경우가 계열에서는 예체능계의 경우가 더 가부장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연령에서는 21-24세의 집단과 20세이하 25세 이상의 경우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결혼준비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결혼준비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이수 학생에 비해 가부장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가족관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성별에 따라 결혼의식을 인식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숙희(2003)<sup>43)</sup>의 연구에서 성별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주요한 변수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박말순(1998)<sup>44)</sup>의 프로그램 효과성에 성별이 주요변수로 작

43) 이숙희(2003),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S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용 하고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학년에서는 결혼관과 사랑관, 성관을 제외한 가족관, 배우자관, 성역할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학년과 결혼의식의 차이검증에서 유의성을 찾지 못한 이숙희<sup>45)</sup>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 결과이다. 계열별 결혼의식과 관련한 하위영역의 유의도 조사에서는 사랑관, 배우자관, 성역할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족관과 배우자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을 이수가 결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숙희<sup>46)</sup>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다.

가족관련변인에서 부의 연령은 배우자관과 성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의 직업은 사랑관에 모의 직업은 성관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부의 학력은 사랑관과 배우자관에, 모의 학력은 결혼관, 사랑관, 배우자관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부모의 생존과 가계수입은 배우자관에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배우자관에는 경제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

44) 박말순(1998), “결혼준비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이숙희(2003),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S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 이숙희(2003),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S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11> 대학생의 결혼의식에 관한 변인별 차이

변인		결혼관	사랑관	가족관	배우자관	성관	성역할관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	3.61(.55)	3.72(.55)	3.91(.51)	3.57(.56)	3.21(.54)	3.08(.70)
	여	3.17(.61)	3.21(.58)	3.89(.50)	4.01(.52)	2.92(.45)	2.41(.76)
	t값	10.94***	12.89***	.51	-11.45***	8.32***	13.06***
학년	1	3.47(.64)	3.47(.59)	3.83(.57) A	3.68(.61) A	3.14(.49) AB	3.04(.77) B
	2	3.35(.56)	3.48(.61)	3.86(.49) A	3.74(.56) AB	3.06(.51) AB	2.71(.76) A
	3	3.41(.67)	3.43(.65)	3.93(.50) AB	3.86(.61) BC	3.00(.54) A	2.68(.87) A
	4	3.42(.69)	3.45(.60)	4.00(.95) B	3.91(.54) C	3.13(.49) B	2.73(.77) A
	f값	1.17	.28	3.68*	5.35***	2.45	4.94**
계열	인문	3.40(.70)	3.39(.60) A	3.88(.54)	3.81(.62) AB	3.09(.53)	2.69(.86) A
	이공	3.39(.55)	3.49(.62) AB	3.90(.48)	3.75(.57) A	3.05(.49)	2.72(.72) A
	예체능	3.36(.62)	3.52(.64)B	3.93(.47)	3.89(.55) B	3.04(.52)	2.89(.84) B
	f값	.16	3.14**	.40	3.00*	1.53	3.38*
연령	20세이하	3.39(.65) A	3.48(.60) A	3.88(.53)	3.77(.58) AB	3.08(.51) A	2.87(.84) B
	21-24	3.33(.62) A	3.41(.61) A	3.88(.49)	3.84(.58) B	3.03(.49) A	2.65(.78) A
	25세이상	3.59(.59) B	3.65(.63) B	3.97(.52)	3.67(.59) A	3.18(.58) B	2.98(.76) B
	f값	10.05***	9.24***	2.03	5.05**	7.96***	12.03***
교육이수	이수	3.31(.63)	3.39(.65)	4.00(.51)	3.99(.55)	3.05(.51)	2.60(.80)
	비이수	3.41(.62)	3.49(.61)	3.87(.50)	3.73(.58)	3.07(.51)	2.78(.80)
	t값	-2.02*	-1.97*	3.28***	5.44***	-2.66**	-2.77**
부연령	50세이하	3.35(.61)	3.42(.63)	3.91(.50)	3.88(.54)	2.98(.68)	2.71(.79)
	51세이상	3.42(.62)	3.49(.61)	3.91(.48)	3.77(.59)	3.12(.64)	2.75(.80)
	t값	-1.37	-1.39	.08	2.49*	-2.80**	-.74
모연령	50세이하	3.36(.58)	3.45(.60)	3.92(.47)	3.83(.55)	3.05(.67)	2.72(.79)
	51세이상	3.43(.65)	3.48(.63)	3.89(.51)	3.75(.61)	3.10(.65)	2.76(.82)
	t값	-.156	-.71	.87	1.92	-1.05	-.60
부직업	사무공무원	3.38(.62)	3.42(.61) A	3.91(.50)	3.85(.58)	3.06(.68)	2.75(.79)
	기술,자영,농업	3.42(.63)	3.57(.65) B	3.97(.46)	3.82(.55)	3.06(.61)	2.78(.75)
	무직	3.39(.62)	3.48(.63) AB	3.87(.51)	3.74(.60)	3.08(.68)	2.67(.84)
	f값	.26	3.11*	1.50	2.61	.08	.90
모직업	전업주부	3.34(.64)	3.42(.60)	3.91(.48)	3.82(.57)	3.00(.64)	2.73(.79)
	기타	3.41(.60)	3.48(.63)	3.90(.50)	3.79(.59)	3.10(.67)	2.74(.80)
	t값	-1.68	-1.39	.35	.68	-2.15*	-.21
부학력	초졸이하	3.50(.58)	3.62(.64) B	3.99(.51)	3.76(.52) AB	3.06(.64)	2.63(.94) A
	중졸	3.46(.67)	3.64(.57) B	3.89(.46)	3.68(.55) A	3.07(.65)	2.85(.72) B
	고졸	3.38(.59)	3.48(.59) AB	3.89(.46)	3.82(.56) AB	3.08(.67)	2.72(.78) AB
	대졸이상	3.35(.63)	3.33(.64) A	3.91(.53)	3.88(.60) B	3.04(.64)	2.73(.80) AB
	f값	1.39	8.00***	.74	3.15*	.20	1.14
모학력	초졸이하	3.54(.55) B	3.64(.53) C	3.95(.42)	3.68(.59) A	3.16(.62)	2.80(.83)
	중졸	3.42(.60) AB	3.51(.60) BC	3.86(.46)	3.73(.50) AB	3.11(.63)	2.72(.74)
	고졸	3.35(.60) A	3.43(.59) B	3.91(.47)	3.85(.57) BC	3.03(.69)	2.71(.81)
	대졸이상	3.34(.70) A	3.28(.72) A	3.90(.63)	3.87(.66) C	3.04(.64)	2.77(.83)
	f값	3.38*	750***	.93	4.18**	1.39	.47
부모생존	양친생존	3.39(.62)	3.46(.62)	3.91(.49)	3.82(.57)	3.07(.66)	2.73(.80)
	기타	3.35(.71)	3.45(.61)	3.82(.63)	3.59(.67)	3.13(.71)	2.80(.83)
	t값	.52	.12	1.35	3.12**	-.70	-.72
수입	200만원이하	3.38(.60)	3.51(.59)	3.88(.50)	3.68(.58)	3.09(.66)	2.75(.81)
	201만원이상	3.41(.65)	3.43(.63)	3.90(.51)	3.85(.58)	3.09(.66)	2.75(.80)
	t값	-.72	1.74	-.47	-4.02***	.06	-.005

p<0.05 \*, p<0.01 \*\*, p<0.001\*\*\*

## 2)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와 관련한 변인차이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개인내적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년,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학년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1-2학년과 3학년, 4학년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관련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가 개인내적영역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상호작용의 경우에서도 개인내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별, 학년,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높고, 학년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1,2학년과 3,4학년의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 이수자의 경우가 비이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외적영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관련변인에서 성별, 학년,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가족관련 변인에서 부의 직업과 모의 학력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1, 2학년과 3, 4학년의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이수자의 경우가 개인 외적 결혼준비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의 직업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집단과 일을 하지 않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모의 학력에서는 초졸 이하

와 중졸, 고졸 이상의 세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외적 영역의 교육내용이 사회생활과 친구, 교육과 관련한 부분인 점에서 부모의 사회활동 여부가 결혼준비교육의 요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철학적 영역에서는 연령을 제외한 성별, 학년, 계열별,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 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학년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1학년, 2학년, 3, 4학년의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별 영역에서는 예체능계일 경우,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관련 교과목 이수자인 경우가 철학적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의 연령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4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술영역에서는 성별, 학년,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와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학년에서는 Duncan's-Test의 결과 4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4학년의 경우,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관련 교과목 이수자인 경우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기술영역의 교육내용이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용하는 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부모에 의한 모방과 역할연습에 의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술들이나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그 기술을 가정내에서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긍정적인 모델이 형성되지 않아 부모의 생존여부에 의해서 기술영역과 관련한 요구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영역에서는 학년과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 모의 학력과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



로 학년의 경우에는 1, 2학년, 3학년, 4학년의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4학년일 경우,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서는 이수자의 경우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초졸이하, 중졸, 고졸 이상의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고 부모의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부모가 생존한 경우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결혼예식과 결혼에 대한 준비의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기타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준비교육 실시 전반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개인내적영역에서만 유의도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인내적 영역에서 결혼준비교육 요구도가 높다는 정외숙<sup>47)</sup>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학년에 따른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 차이는 개인내적영역, 상호작용, 개인외적, 철학적, 기술영역, 기타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년이 고학년 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열별로는 철학적 영역에서만 예체능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령별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대한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연령대별 결혼준비교육 실시 요구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외숙<sup>48)</sup>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대한 차이는 철학적영역과 기타영역, 개인내적영역, 상호작용영역, 개인외적영역, 기술영역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

47) 정외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정외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또한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의 직업이 개인외적영역에서, 모의 학력이 개인외적 영역과 철학적 영역, 기타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모의 생존이 기술영역과 기타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2>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변인 차이

변인		개인내적	상호작용	개인외적	철학적	기술영역	기타영역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	3.76(.68)	3.93(.64)	3.80(.68)	3.62(.78)	3.96(.70)	3.74(.76)
	여	3.91(.62)	4.09(.59)	3.94(.66)	3.79(.71)	4.16(.64)	3.80(.72)
	t값	-3.27***	-3.81***	-3.02**	-3.23***	-4.34***	-1.23
학년	1	3.78(.66) A	3.92(.72) A	3.76(.75) A	3.71(.80) AB	3.99(.71) AB	3.69(.76) A
	2	3.76(.63) A	3.92(.61) A	3.78(.66) A	3.59(.77) A	3.96(.67) A	3.69(.74) A
	3	3.91(.69) AB	4.09(.58) B	3.98(.65) B	3.82(.70) B	4.14(.66) BC	3.86(.73) AB
	4	3.94(.64) B	4.17(.59) B	4.01(.64) B	3.84(.65) B	4.23(.64) C	3.87(.75) B
	f값	3.86**	7.59***	7.47***	6.55***	6.87***	3.66*
계열	인문	3.84(.70)	3.98(.65)	3.87(.70)	3.72(.76) AB	4.05(.68)	3.73(.76) A
	이공	3.81(.63)	4.02(.62)	3.87(.66)	3.65(.74) A	4.05(.69)	3.75(.73) A
	예체능	3.89(.62)	4.05(.57)	3.87(.65)	3.83(.71) B	4.08(.65)	3.89(.72) B
	f값	.91	.76	.00	3.26*	.14	2.62
연령	20세이하	3.81(.63)	3.96(.68)	3.81(.72)	3.73(.77)	4.02(.67)	3.76(.75)
	21-24	3.85(.65)	4.04(.60)	3.90(.65)	3.71(.74)	4.09(.67)	3.79(.74)
	25세이상	3.79(.70)	3.95(.65)	3.82(.70)	3.71(.76)	3.97(.71)	3.72(.76)
	f값	.63	1.74	1.38	.06	1.99	.44
교육이수	이수	3.99(.62)	4.18(.58)	4.02(.65)	3.85(.71)	4.25(.65)	3.89(.73)
	비이수	3.78(.66)	3.96(.62)	3.82(.67)	3.66(.75)	3.99(.67)	3.73(.75)
	t값	3.97***	4.46***	3.78***	3.07**	4.78***	2.65**
부업행위	50세이하	3.84(.64)	4.05(.58)	3.88(.65)	3.76(.71)	4.11(.62)	3.78(.74)
	51세이상	3.85(.67)	4.01(.64)	3.89(.68)	3.69(.77)	4.05(.70)	3.78(.75)
	t값	-.17	1.04	-.15	1.29	1.20	-.009
모집행위	50세이하	3.85(.63)	4.05(.57)	3.89(.62)	3.73(.71)	4.11(.62)	3.79(.72)
	51세이상	3.83(.67)	3.95(.67)	3.84(.72)	3.69(.78)	3.99(.73)	3.75(.76)
	t값	.29	2.29	1.00	.85	2.34	.82
부직업	사무공무원	3.88(.66)	4.05(.64)	3.93(.68) B	3.77(.75)	4.11(.69)	3.81(.78)
	기술,자영,농업	3.85(.63)	4.07(.54)	3.91(.60) B	3.71(.73)	4.11(.60)	3.84(.68)
	무직	3.77(.68)	3.95(.62)	3.78(.67) A	3.64(.77)	3.98(.68)	3.70(.72)
	f값	2.16	2.26	3.74*	2.31	2.78	2.10
모집업	전업주부	3.87(.62)	4.03(.60)	3.90(.69)	3.75(.73)	4.11(.65)	3.82(.74)
	기타	3.82(.66)	4.00(.63)	3.85(.66)	3.69(.76)	4.03(.68)	3.75(.74)
	t값	1.07	.78	1.10	.97	1.55	1.23
부학력	초졸이하	3.95(.56) B	4.04(.58)	3.83(.58)	3.65(.70)	4.10(.71)	3.70(.69)
	중졸	3.70(.72) A	3.91(.73)	3.78(.75)	3.58(.89)	3.97(.74)	3.69(.76)
	고졸	3.84(.65) AB	4.06(.57)	3.91(.65)	3.75(.72)	4.10(.63)	3.80(.73)
	대졸이상	3.88(.67) AB	4.03(.64)	3.90(.67)	3.76(.75)	4.06(.70)	3.82(.77)
	f값	2.25	1.41	1.22	1.78	1.03	1.02
모학력	초졸이하	3.75(.65) A	3.94(.66)	3.76(.70) A	3.54(.81) A	4.00(.70)	3.61(.72) A
	중졸	3.77(.64) AB	3.98(.63)	3.81(.67) AB	3.62(.75) AB	4.02(.68)	3.75(.75) AB
	고졸	3.87(.63) AB	4.04(.59)	3.92(.65) B	3.77(.71) BC	4.09(.65)	3.82(.73) B
	대졸이상	3.91(.68) B	4.02(.62)	3.94(.62) B	3.83(.74) C	4.08(.67)	3.81(.77) B
	f값	2.29	1.04	2.76*	5.19***	.98	2.74*
부생존	양친생존	3.84(.65)	4.02(.62)	3.88(.67)	3.72(.75)	4.07(.67)	3.79(.75)
	기타	3.73(.67)	3.87(.63)	3.76(.73)	3.55(.70)	3.90(.69)	3.60(.69)
	t값	1.37	1.94	1.44	1.85	2.09*	1.99*
수입	200만원이하	3.80(.62)	3.99(.59)	3.84(.64)	3.64(.74)	4.04(.65)	3.73(.71)
	201만원이상	3.85(.69)	4.02(.65)	3.87(.71)	3.73(.76)	4.06(.71)	3.79(.78)
	t값	-.89	-.69	-.73	-1.61	-.43	-1.10

p<0.05\*, p<0.01\*\*, p<0.001\*\*\*

## 8. 대학생들의 특성이 결혼의식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영향력

대학생들의 특징에 대한 결혼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제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F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제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학생들의 특징에 대한 결혼의식 중 결혼관에 있어서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이성교제 중인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종교가 없는 경우 결혼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14%였다. 이러한 결과 중 종교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성은 종교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향적인 결혼상을 교리와 일상에서 제시하여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랑관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학년, 계열, 출생순위, 이성교제의 유무, 부의 학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20%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문계열보다는 예체능계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경우 사랑관이 증가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사랑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성교제의 경험에 따른 사랑관의 변화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에 따른 주위의 학습으로 얻게 되는 정보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관에서는 학년, 교육의 이수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가족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관에서는 성별, 학년, 종교의 유무, 가계수입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설명력은 약 17%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배우자관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배우자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으로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수입이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또한 종교에서 교리와 교육을 통한 배우자에 대한 학습이 이루지는 점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성관에 있어서도 성별, 이성교제의 유무, 모의 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현재 이성교제 중인 학생의 경우 성관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성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설명력은 약 11% 정도였다.

성역할관에 있어서는 성별, 계열, 종교의 유무, 출생순위에 의해 영향력을 받고 있었는데 설명력은 약 22%였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에 비해 예체능계의 경우, 첫째일수록 성역할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경우에는 성역할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출생순위에 따른 역할관이 결혼생활에서의 성역할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 결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혼관에서는 성별, 학년, 종교의 유무, 이성교제의 진행유무 관련 변수, 사랑관에서는 성별, 연령, 학년, 계열, 출생순위, 이성교제의 진행여

부, 부의 학력과 관련한 변수, 가족관에서는 학년,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배우자관의 경우 성별, 학년, 종교의 유무, 가계수입에 관한 변수, 성관의 경우 성별, 이성교제의 진행여부와 모의 직업에 관련한 변수, 성역할관의 경우, 성별, 계열, 종교의 유무, 출생순위, 이성교제의 진행여부와 관련한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영역별 결혼의식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각각 다르므로 그러한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표 13> 결혼의식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영향력

설명변수	결혼의식					
	결혼관	사랑관	가족관	배우자관	성관	성역할관
<b>개인관련변수</b>						
성별(여학생)	.396***	.469***	.068	-.320***	.323***	.463***
연령	-.082	-.104*	-.028	-.007	.018	-.065
학년	.098*	.095*	.136**	.127**	.084	.012
계열(인문)						
이공	-.015	.048	.022	-.057	-.051	.011
예체능	-.025	.092*	.017	-.003	-.024	.135***
부모생존(기타)	.037	-.024	-.011	-.024	-.048	-.041
종교(유)	-.088*	-.017	-.048	-.171***	.029	-.109***
출생순위	-.070	-.080*	-.051	.007	-.042	-.123***
이성교제(비교제)	.096**	.089*	.029	.041	.072*	.071*
교육이수(비이수)	-.023	.035	.102**	.059	.007	-.008
<b>가족관련변인</b>						
부학력(초졸이하)						
중졸	-.085	-.047	-.084	-.018	.004	.041
고졸	-.103	-.129	-.117	.007	.102	.040
대졸이상	-.104	-.191*	-.089	.022	.114	.036
모학력(초졸이하)						
중졸	-.046	-.057	-.033	-.007	-.020	-.053
고졸	-.125	-.091	-.032	.011	-.113	-.097
대졸이상	-.086	-.103	-.009	.032	-.075	-.053
부직업(사무공무원)						
자영/생산기술직	-.024	.035	.044	.048	-.016	-.016
무직	-.016	-.011	.006	.027	.003	-.048
모직업(기타)	-.028	-.015	.005	-.024	-.081*	.024
수입(200만원미만)	.063	.030	.024	.075*	.026	-.001
상수	4.875***	6.735***	7.161***	6.849***	4.789***	4.872***
F	6.585***	9.816***	1.381	8.407***	5.348***	10.758***
Adj R <sup>2</sup>	.140	.205	.011	.177	.113	.220

주)계수는 표준화계수 임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 배경변인에 따라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의식을 결혼관(M=3.39), 사랑관(M=3.47), 가족관(M=3.90), 배우자관(M=3.80), 성관(M=3.07), 성역할관(M=2.75)의 6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결혼관의 경우 결혼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경향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고, 결혼의 동기요소로 친구들의 결혼하여 잘 사는 모습이 작용하고 있었다. 사랑관의 경우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가족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필요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배우자관에 있어서는 배우자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인생목표와 가치관이 확실하길 바라고 있었다. 성관에 있어서 성행동은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성역할관의 경우 취학 전 어린이는 아내가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직업을 갖고 있다면 집안 살림은 아내의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가사노동부분에서는 가부장제적인 성역할관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나 자녀의 양육면에 있어서의 책임은 아직도 여성에게 있어 가부장제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제주지역 대학생의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이유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58.9%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이유로 결혼은 교육과 연관 시킬 수 없는 요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41.7%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혼은 교육과 연관 시킬 수 없는 요소’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결혼준비교육의 불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 결혼준비교육과 관련한 교과목 이수여부 여부에 따라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가 비이수자에 비해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있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결혼준비교육 실시 방법 요구도는 결혼준비교육 실시 시 가장 효과적인 실시기관으로 대학을 32.5%가 응답하였고, 교육의 시작시기는 2-3개월 전에 하길 원하고 있었다. 모임횟수는 3-4회로 하길 바라며 실시장소로는 소규모 토의실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참여단위로는 가능하면 커플이 참석하기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결혼준비교육을 받는다면, 정규수업을 수강하겠다는 의견이 61.4%이었고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수강여부와 관련하여 수강하겠다는 67.5%, 안 받겠다는 32.5%이었다.

넷째, 결혼의식의 배경변인과 관련하여 성별의 경우 가족관을 제외한 결혼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관, 성역할관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년의 경우는 가족관, 배우자관, 성역할관에서 계열별로는 사랑관, 배우자관, 성역할관에서 결혼의식에 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가족관, 배우자관인 경우는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가 높게 나

타난 반면, 결혼관, 사랑관인 경우는 비이수자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역할관에 있어서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가 가부장제적인 사고에서 성평등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결혼준비교육의 배경변인과 관련하여 성별과 학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관한 남녀간의 요구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4학년의 요구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계열별 변인에서는 철학적 영역에서만 전공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와 관련해서 모든 영역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가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의 직업이 개인외적영역에, 모의 학력이 개인외적영역과 철학적 영역, 기타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모의 생존여부는 기술영역과 기타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섯째, 결혼의식에 대해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결혼관에서는 성별, 학년, 종교의 유무, 현재 이성교제의 여부, 사랑관에서는 성별, 연령, 학년, 계열, 출생순위, 현재 이성교제의 여부와 관련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관에서는 학년, 교육이수여부와 관련한 변수, 부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관의 경우 성별, 학년, 종교의 유무, 가계수입과 관련한 변수에서 영향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성관의 경우 성별, 현재 이성교제의 여부와 관련한 변수와 모의 직업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성역할관의 경우, 성별, 계열, 종교의 유무, 출생순위와 현재 이성교제 여부와 관련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준비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실시기관으로 대학으로 응답함에 따라 학생들이 쉽게 결혼준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결혼준비교육 강좌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준비교육 실시 시 참여단위가 소규모 토의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대규모 강좌와 더불어 소규모 토의형식의 강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소규모 토의형식의 강의를 원하고 있으나 그에 맞는 결혼준비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결혼준비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결혼준비교육강좌 수강 후 실제 결혼 연령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결혼 전 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각 영역별 결혼의식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별을 제외하고 다르므로 그러한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주도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표본 추출이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석만(200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조건”, 대한가정학회지 Vol. 35 no.3, p15-30
- 김정옥(1998), 「결혼과 가족」, 학지사
- 김미정(2000),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석(1989),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
- 김혜선(1992),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한은주(1998),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Ⅱ)”,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 Vol.26, p397~416
- 김혜선, 신수아(2002), “결혼준비 척도 개발 연구 -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40 no.3, p41-53
- 두 산(2002), 「동아 새국어사전」
- 박말순(1998), “결혼준비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삼 성(1993), 「신세대 가치관 변화와 인사정책방향」, 삼성그룹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Vol. 52 No.1
- 옥선화·정민자(1993), 「결혼과 가족」, 삼성출판사
- 유영주 외(2000), 「현대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 이숙희(2003),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S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임선영(2002), “결혼준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혼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Vol.34. no.4 p.373-391

정외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2003), 「혼인·이혼통계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0), 「통계연보로 본 한국가족의 제문제」

한경순(2001), “가족가치관과 가족자원관리의 관계”, 조선대 교과교육연구, Vol.4 No.1

한남제(1989),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Charles M. Sell, "Family Ministry" op. cit

Collins. G. R.(피현희, 이혜련 역,1993),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출판사

D.R.Mace(1987), "Three Ways of Helpi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13, pp179-180

Dreikurs, Rudolf(1946), "The Challenge of Marriage", New York: Hawthorn Books, c1946

E. A. Westermarck(1929), "인류 혼인사", 최달신, 정동호(역), 박명사, p.58-59

G. R. Collins(1984), A Christian Counseling, p.231

H. A. Bowman(1970), "marriage for moden", (New York: McGraw-Hill), p.57

- Kevin John Howse(1982), "The Empirical Development of A Preparation For Marriage Curriculum For Twelfth-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 D. Andrew University, pp14-24
- Kohlberg(1966), L. A. A cognitive development analysis of children ' 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강정구(1988) 재인용
- Rutledge(1966), Premarital Counseling,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Co.
- Shorter, Edward(1977),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c1977
- Stanley, S. M. & Markman, H. J.(1997), : A Nationwide Random Phone Survey. Denver Colorador ;, PREP, Inc, 김혜선, 박희성 (2001), "텔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39 no.7에서 재인용
- Strong, B & Devault, C.(1992),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lishing Co.
- William H. Master, Virginia E. Johnson(1985), ";Human sexuality, Little, Brown & Company Ltd.

## **Abstract**

**A study of the idea and the effect about a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Jin, Kyung-bok**

Major in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Hye-sook, Ph. D.**

There is a purpose of this thesis to help university students to have a fertile marital life by notifying the essential factors for maintaining one's marital lif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offers the basic materials for forming the program of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by looking over a variable effecting on the idea of a marriage and the demand of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The university students in Jeju attended this survey for researching the idea of a marriage and the demand of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with Likert of which maximum point is 5. Through t-test and ANOVA analysis, each subordinate positions of the idea of a marriage and the demand of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the differences are tested and the effects on the idea of a marriage are analyzed through a Multiple Regression.

There are results of a main analysis mentioned above.

First, After researching the idea of a marriage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in classifying 6 sub-categories, there appeared to be a view of a

marriage; 3.39 points, a view of love; 3.47 points, a view of family; 3.90 points, a view of spouse; 3.80 points, a view of sexuality; 3.07 points, and a view of sex-duty; 2.75 points.

Second, most of the students have a lot of the necessities about the education for a marriage and the major reason is "for a happy marital life". On the other hand, the unnecessary reason is that a marriage is not related with an education.

Third, A leading institution for an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is a university. So it is good for both of spouses to have a meeting 3 or 4 times at a small conference room for their marriage before 2 or 3 month ago.

Fourth, there appeared to be a bit of differences in the idea marriage between male and female.

Fifth, in general, there appeared to be differences in the demand of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not only sexuality but grades, especially female and seniors' attention in the demand of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is higher than any other grades.

Sixth, a view of sexuality effects on all of sub-categories except a view of family in the analysis about a special quality of the idea of a marriage. Whether or not having of the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just only effects on a view of family.

Based on abov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is able to make some suggestions.

First, a university as the most prope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 marriage must open many courses so that students having a attention about a marriage may face the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Second, large courses and small courses of a discussion style have to be introduced because of preference to courses of small scale.

Third, many specialists for the education for a marriage-preparation have to be trained as a shortage of proper specialists in one.

Fourth, the education set forth a s premise a real marriage have to be carried ou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ges and real ages in a marriage.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귀하의 결혼의식과 결혼준비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며, 좋고 나쁜 것이나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준비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조사자료는 학문적인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진 경 복

1. 개인적인 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 ) 세
3.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4. 전공 (1) 인문·사회계 (2) 이공계 (3) 예·체능계
  
5. 부모님의 생존여부는 어떻습니까?  
(1) 양친모두 계신다 (2) 부친만 계신다 (3) 모친만 계신다 (4) 양친 모두 안 계신다(5) 기타 ( )
  
6. 부모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부와 모 각각 ( )안에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 ) 모( )  
(1) 40세 이하 (2) 41-50세 (3) 51-60세 (4) 60세 이상
  
7.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와 모 각각 ( )안에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 ) 모( )  
(1) 무학 (2) 초등학교 졸 (3) 중학교 졸 (4) 고등학교 졸 (5) 전문대 졸  
(6) 대학교 졸 (7) 대학원 졸 이상
  
8. 부모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부와 모 각각 ( )안에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 ) 모( )  
(1) 사무직·공무원 (2) 전문직 (3) 자영업 (4) 생산직 (5) 기술직 (6) 서비스직  
(7) 무직 (8) 전업주부 (9) 농·어업 (10) 기타 ( )
  
9. 가계의 한 달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10.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1) 가톨릭(성당) (2) 개신교(교회) (3) 불교 (4) 무교 (5) 기타 ( )
  
11. 귀하의 출생순위는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12. 귀하는 어떤 형태의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1) 결혼 (2) 동거 또는 결혼 전 동거 (3) 동거 후 결혼 (4) 독신
  
13. 귀하는 현재 이성교제 중입니까?  
(1) 예 (2) 아니오 ( II. 결혼과 관련한 문항으로 가시오)
  
14. 귀하가 현재 이성교제 중이라면 교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6개월 이하 (2) 7개월~1년 미만 (3) 1년 이상 ~ 2년미만  
(4) 2년 이상 ~ 3년미만 (5) 3년 이상

II. 결혼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 문	매그다 우렐 그다	릴 보이다	통 이다	별그 지다	로렐 안 전그 지다	허렐 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생활상의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친구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진다.						
결혼식은 일생의 단 한번이므로 가능한 한 성대하게 하고 싶다						
출생순위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의 생존여부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랑한다면 교재기간이 짧아도 결혼할 수 있다.						
사랑은 결혼의 필수조건이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학력차이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가족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문제를 그 사람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결혼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때에는 파트너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자기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랑일 수 있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좋은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거지를 정할 때 남편의 직장이 우선 고려된다.						
아이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혼 후 부모님을 부양할 것이다.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부치료(또는 성치료, 이혼치료)를 받거나 권하겠다.						
배우자는 인생목표와 가치관이 확실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와 종교가 같아야 한다.						
배우자간에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간에는 역할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간에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동거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하다.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순결해야 한다.						
성행동은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적 매력은 이성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성'의 의미는 성별의 구별보다 성행위를 의미한다.						
취학 전 어린 자녀는 아내가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						
가족부양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있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집안 살림은 아내의 책임이다.						
아내는 남편이 결정한 가정내의 중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편의 수입이 중요하므로 아내보다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더 중요하다.						



4. 만약 귀하께서 결혼준비교육을 받는다면 다음 각 항목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 문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결혼하려는 동기와 이유를 검토해 보는 것					
결혼생활의 실제적인 현실을 알게 되는 것					
자기 자신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이 조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술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기술					
배우자간의 동반자 의식이나 친밀감을 키워가는 것					
문제해결기술과 갈등해결기술을 익히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과 방법을 익히는 것					
가정배경과 성장배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합리적으로 가정배경을 관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					
양가 부모님들과 맺을 유대관계(동거, 재정적지원, 충고 등)정도를 의논하는 것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해 가는 것					
자신과 배우자의 종교와 종교적 활동정도가 조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					
배우자와 평등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성교육(남녀의 생리, 임신, 피임, 출산 등)을 실시하는 것					
성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배우자의 성적기대를 이해하는 것					
맞벌이와 가사분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것					
자신과 배우자의 현재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					
생활할 집의 위치, 크기, 비용, 꾸미기 등을 결정하는 것					
분수에 맞은 혼수, 약혼 및 결혼예식 피로연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것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와 위기를 다루는 능력을 익히는 것					
공동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					
스트레스와 갈등해결 능력을 익히는 것					
재정관리에 관한 방법을 익히는 것					

#### IV. 결혼준비교육 실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만약 귀하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실시기관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기관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3) 사설학원 등의 민간단체
- (4) YWCA 등의 사회봉사단체
- (5) 마을회관 등의 사회복지단체
- (6) 대학이나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
- (7) 기타 ( )

2. 만약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1개월 이내
- (2) 2-3개월 전부터
- (3) 4-6개월 전부터
- (4) 7-9개월 전부터
- (5) 10개월이상 전부터
- (6) 기타 ( )

3. 귀하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1회 모임을 2시간으로 할 경우 최소 몇 회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1-2회
- (2) 3-4회
- (3) 5-6회
- (4) 7회 이상
- (5) 기타 ( )

4.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장소로 가장 바람직한 장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강의실
- (2) 소규모 토의실
- (3) 참가자들의 가정
- (4) 교육실시자의 가정
- (5) 기타 ( )



5.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가장 바람직한 참여단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커플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 (2) 커플이 함께 참여하면 좋다.
- (3) 남녀로 구분해야 한다.
- (4) 아무래도 괜찮다.
- (5) 기타 ( )

6. 대학교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형식을 원하십니까?

- (1) 부설기관에서의 교육
- (2) 대학 정규과정의 수업
- (3) 특별강좌
- (4) 소규모 그룹 미팅
- (5) 기타 ( )

7. 만약 대학교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강의한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8. 대학교에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여 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9. 결혼준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 (1) 이수(    ) (2) 비이수 (    )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